

울산시, 장애인 문화·정보교류 등 복지 확충에 1838억 투입

전년비 236억 증액... 14.7% ↑
컴퓨터·악기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을 피해 장애아동 쉽터 2곳 개소

울산시는 장애인의 문화·정보교류와 복지 인프라 확충, 사회활동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원(14.7%) 증액됐다.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시는 장애인의 문화·육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컴퓨터, 악기 등 장애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한다. 또 4월 중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 주간행사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월 '피해 장애아동 쉽터' 2곳을 개소해 학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1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3년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청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발달장애인 거점센터'도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나선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시는 총사업비 52억원을 확보(국비 30억원, 시비 22억원)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인력 증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급식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751명으로 확대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

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3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도 지원한다.

또 올해도 장애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이어간다. 인형극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장애인차별상담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정읍시 농업인안전보험 부담금 지원

정읍시가 영농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안전보험)의 농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이 있다.

안전보험은 15~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가까운 지역농협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으로 매년 가입해야 한다.

/정읍(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연이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이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지역 R&D 전담조직)을 대상으로 평가한 선도연구개발지원단에 경북연구개발지원단(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R&D역량 분석, 산업 지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현안과제 발굴·기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는 정책실행력에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u57@

구미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

구미시는 낙동강 지역에 새로운 관광 코스인 '낙동강 비산나룻길'을 조성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8일 16시부터 개방한다.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전체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비산나루터와 구미천 중점부까지 수상 보도교와 데크길 등 총 길이 1km의 탐방로를 조성한 사업이다.

비산나룻길은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로, 낙동강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탐방객들에게 힐링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경북)=류희철 기자 rhc1369@

스마트기술 접목해 대중교통 개선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 추진

광역환승 특화도시 구축 등
지난해 8개 분야 정책 수립

경남 진주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고자 올해 상반기부터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고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는 다양한 교통 욕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신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미해 안전하면서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새로운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업 등의 불안 요소가 없어야 하고,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진주시, 스마트기술 접목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진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인가제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지난해에 수립한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른 것으로 ▲진주형 MaaS(광역환승 특화도시) 구축 ▲DR 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 ▲ 시내버스 노선 개편 ▲ 청소년 무상교통 도입 ▲ 체계적인 스마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디자인 개선 ▲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미지 개선 ▲ 행정조직 개편 등 크게 8개 분야이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진로진학 연계사업 성과

조선대 등 7개 대학과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도내 일반고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진행한 고교-대학 연계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은 6~7일 양일간 조선대 등 7개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협력 강화 워크숍을 갖고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을 주관한 조선대 외 6개 대학이 대학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성과를 발표하고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지역인재 전형 현황을 소개했으며, 지역 사범대의 전라남도교육감추천 전형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전남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지원을 위해 진행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



순천대 관계자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램 중에서는 ▲조선대의 ON:tact 미래전공설계(60강좌, 4,000명 참여) ▲광주교대 도서지역 고교방문 프로그램(17교, 349명 참여) ▲목포대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전공이야기(15교, 4,320명 참여) 등이 두드러졌다. 또한, 순천대의 오픈 캠퍼스-학과탐방(13회, 1,414명 참여), 전남대의 5개 권역 진로진학 상담센터와 함께한 학부모아카데미(5회, 200명 참여)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시, 올해 신규공무원 210명 채용

전년비 212명 감소... 50.2% ↓

대구시는 2024년도 신규공무원 채용 규모를 210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인원, 시험일정, 시험제도 변경사항 등 세부 시험계획을 7일 발표했다.

대구시의 올해 선발인원은 5급 1명(일반의무), 7급 8명(일반행정 3명, 수의 5명), 8·9급 191명(일반행정 9급 등 20개 직류), 연구직 10명 등 25개 직류 21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212명이 감소한(-50.2%) 것으로 민선 8기 들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혁신 및 인력운영 계획의 정원동결 기조를 반영하고, 유사기능 통합화 및 쇠퇴 분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우선으로 필요한 최소인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확정했다.

직렬별 선발인원은 ▲의무직 5급 1명 ▲행정직 7급 3명 ▲수의직 7급 5명 ▲행정직 9급 75명 ▲세무직 13명 등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고흥군, 미래전략 항공산업 육성 '총력'

드론·UAM 중심도시 입지 다져

고흥군은 2024년을 드론·UAM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미래 전략 항공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고흥군은 우주산업에 이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기반 우수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그중 고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직경 22km), 고흥 항공센터, 국가중합비행시험성능장(1.2km/700m 활주로), 고흥 드론센터, 드론산업화 실증 지원센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으로 드론·UAM 중심도시 고흥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20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중인 4만 평의 드론 제조연구 시설인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과 드론 체험 교육 전시 시설인 드론체험물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고흥 드론센터 내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이고 역량이 있는 드론 관련 기업에 유치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올해 고흥형 UAM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UAM 모니터링 기반구축 시설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UAM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전남)=양수영 기자

울주군 61억 들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울산 울주군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61억원을 들여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남부권 대표 시장인 남창용기중기시장은 동해선 개통 등으로 이용객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 시장 확대사업과 노후화된 시설개선 사업을 펼친다.

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 장육 8개동을 철거한 후 증축하고, 아케이드 1개 동을 신규 설치한다.

/울주(경남)=이도식 기자